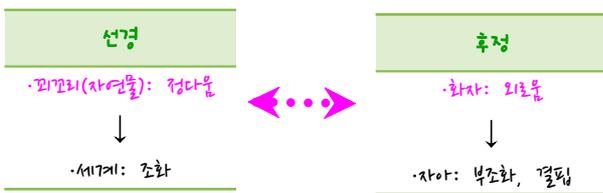


☑ 특징

- 성격: 애상적, 서정적
-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냄
- 선경 후정의 사상 전개 구조로 이루어짐
- 자연(객관적 상관물)과 인간의 대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함
- 자연물에 의탁하여 우의적으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함
- 작가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고대가요
-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
- 사랑을 주제로 한 최초의 개인적 서정시

☑ 대조적 선경후정



<동동(動動)>

☑ 시구 풀이

- 사월 아니 잊어 아오 오셨구나 피꼬리 새여 무엇 때문에 녹사(錄事)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십니까
- 피꼬리와 녹사님의 대조: 4월이 되어 돌아온 피꼬리와 달리 돌아오지 않는 입에 대한 원망과 한탄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녹사'는 고려 시대 관직의 하나로, 임의 신분과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오월 오일에 아오 수릿날 아침 약(藥)은 즈른 해를 길이 사실 약이라 바치옵니다
- **사월 아니 너저 아오 오실셔 곳고리새여**
 - 사월이 되니, 나를 잊지 않고 아, 나를 찾아 왔구나, 피꼬리아
 - 사월이 되자 피꼬리는 예전처럼 화자를 찾아왔지만, 그리운 입은 아직도 화자를 찾지 않고 있음을, 이하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기에, '화자를 찾은 피꼬리의 행동'은 '화자를 찾지 않고 있는 입의 행동'과 대비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므슴다 녹사(錄事)니은 빛 니를 니고신더**
 -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이기에, '녹사'의 벼슬을 하고 있는 나의 입은 과거에 자신과 사랑을 나누었던 나를 잊고 만 것인가
 - 외관적(자연물)의 대조: 사월이 되어 화자를 찾은 피꼬리와

달리, 입은 화자를 찾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을 찾아온 피꼬리를 통해 자신을 찾지 않고 있는 입을 즉 입이 찾아주지 않고 있는 자신의 외로운 처지, 원망의 마음을 담아, 화자가 가슴 아프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4월이 되어 돌아온 피꼬리와 달리 돌아오지 않는 입에 대한 원망과 한탄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녹사'는 고려 시대 관직의 하나로, 임의 신분과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아오 동동(動動)다리** <사월령>

- '동동'은 북소리를 음차한 것으로, 본 행은 특정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후렴구에 해당한다.

• **오월 오일에 아오 수릿날 아침 약(藥)은**

- 음력 오월 오일이(수릿날 = 단옷날) 되어 아! 단옷날 아침에 먹는 이 좋은 약초는
- '사월령', '오월령', '유월령' 등을 통해 본 글이 달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월령체'의(달거리의) 형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달의 흐름' 속에서 계절을 연상할 수 있는 어휘들을(예, '곳고리새') 종종 확인할 수는 있지만, 본 글이 명확하게 '계절의 순환'을(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즈른 해 장존(長存)하살 약(藥)이라 반잡노이다 /아오 동동(動動)다리** <오월령>

- 천 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 수 있는 좋은 약이라 하여, 이를, 입에게 바치옵니다
- 단옷날 아침에 익모초즙을 마시면 병이 없어진다는 풍속과 관련된 것이다. 곁에 없는 입을 그리워하며 약을 바치고 임의 장수를 비는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 나타나 있다.

• **유월사 보로매 아오 별에 비론 빛 다호라**

- 유월 보름은 절기로 '유두'라 하는데 아, 벼랑에 버려진 빛과 같구나.
- '6월 유두'에 사람들은 부정을 막기 위해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를 감고 사용한 빛은 부정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 버려졌다고 한다.
- 입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화자가 '벼랑에 버려진 빛'에 비유하고 있다.

• **도라보실 니를 적곰 좃노이다 /아오 동동(動動)다리** <유월령>

- 나를 돌아보실 우리 입을 → 혹시라도 입이 나를 돌아봐 주시지만 한다면 잠깐이라도 좋으니, 입을 따르고 싶습니다.
- 앞 행과 본 행을 조금 자연스럽게 엮어 풀이해보면, '입이 나를 잠깐이라도 돌아봐 주시지만 한다면, 나는 아무런 고민 없이 입을 따르겠습니다'가 될 것이다.

☑ 특징

- 갈래 : 고려가요
- 성격 : 민요적, 송축적, 연가적, 서정적, 비유적, 상징적
- 후렴구 사용으로 흥취를 고조시킴
- 자연물에 입과 화자를 비유 · 대조함
- 분절체 형식으로 서사인 1연과 본사인 12개 연으로 구성
- 세시풍속에 따라 사랑의 감정을 읊음 (월령체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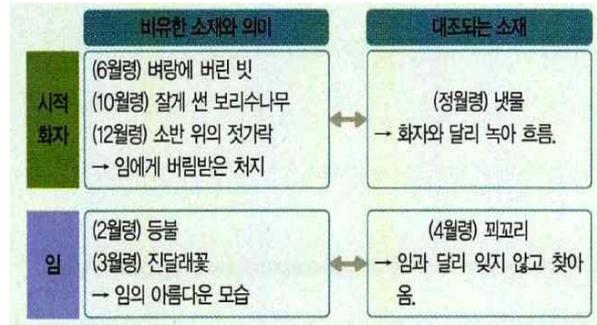
☑ 동경의 형식적 특징

월령	우리 민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음의 월령	
연장체	하나의 작품이 몇 개의 연으로 이루어지는 시가의 한 양식으로, 고려가요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이 다. 이 작품도 서사와 12개 연으로 구성된 본사, 총 13연으로 구성된 연장체의 성격을 띤다.	
후렴구	형식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율의 형성 • 청각적 즐거움 (흥취 고조) • 연(聯)이나 장(章)을 구별
	의미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의 전환 • 다양하게 전개된 시상을 통합

☑ 각 월령에 나오는 세시풍속

2월	연승제	정월 봄에 들을 켜고 볍을 비는 풍습. 고려 현종 조에 2월 봄날로 바뀌었다.
5월	단오	(음력 5월 5일) 여자들은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엮이를 씻고, 남자들은 창포 뿌리를 허리에 차고 다녔는데, 이는 모두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였다. 수리취떡과 쑥떡 등을 먹고, 고래뿔 기침을 달삼 사자춤 가면극 등을 즐겼다.
6월	유두	(음력 6월 15일)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새로 나온 라일라 국수, 떡 등으로 제사를 지냈으며, 유두면(국수의 일종)·편수(만두의 일종) 등을 먹었다.
7월	백중	(음력 7월 15일) 남녀가 모여 온갖 음식을 갖추어 놓고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게 놀았다. 승려들은 이날 각 사찰에서 재를 불렀다.
8월	한가위	(음력 8월 15일) 가을에 거둔 풍성한 곡식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냈다.
9월	중야절	(음력 9월 9일) 이날 서늘의 선비들은 고리오 나가서 동국(楓菊)을 즐기는데, 남자들은 시를 짓고 각 가정에서는 국화전을 부쳐 먹었다.

☑ 입과 화자를 비유한 소재



※ 유리왕, <황조가(黃鳥歌)>

- 주제: 이별의 고통과 슬픔
- 해제: 이 작품은 고려 유리왕과 관련된 노래로 <삼국사기>에 4연 4구의 한시로 기록되어 있다. 선경후정의 구조 속에 세 계와 화자 사이의 대칭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행복한 괴리 한 쌍과 외로운 화자를 대비하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구성

[1행] 하늘을 가볍게 날고 있는 피꼬리

[2행] 암수가 함께 있는 피꼬리

[3행] 홀로 남은 화자

[4행] 화자의 고통과 슬픔

※ 작자 미상, <동동(動動)>

- 주제: 입에 대한 송축과 입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 해제: 이 작품은 작자 미상의 고려 속어로 <악학궤범>에 기록되어 있다. 총 13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연은 송축의 성격을 띤 서사이며 나머지는 달거리 양식에 따라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시상의 흐름은 알만되지는 않으나 대체로 입과의 이별에 대한 아픔, 입을 위한 화자의 자세, 재회의 소망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 노래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줄곧 궁중 무용의 노래말로 불렸다.

• 구성

[사월령] 입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

[오월령] 입의 장수를 기원함.

[유월령] 입과 함께하고자 하는 기원



'개념' 있는 킵샘

1. 서정적 자아와 정서적으로 대조되는 자연물은 □□□이다. [O X]
2. 뽕꼬리에서 시적 화자로 초점이 옮겨가는 구는 □구 이다. [O X]
3. 4구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정서는 □□□이다. [O X]
4. 선경 후정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X]
5. 자연물에 동화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알 수 있다. [O X]
6. 3구에서 시상이 전환되어 '외로울사'라고 화자의 내면세계를 직접 표현하고, 4구에서는 그러한 화자의 슬픔과 고독이 강조되고 있다. [O X]
7. 뽕꼬리와 화자의 대조되는 상황을 통해 임이 부재한 시적 화자의 처지를 확인 할 수 있다. [O X]
8. 4구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고자 하는 화자의 욕망이 드러난다. [O X]
9. 1,3구와 2,4구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O X]
10. 시적 화자의 감정을 독백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O X]
11. 의태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O X]



'개념' 있는 킵샘

1. '곶고리새'는 임과 대비되는 소재로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O X]
2. '곶고리새'는 「황조가」의 '뽕꼬리'와 대조되는 대상은 다르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시어이다. [O X]
3. '녹사'는 고려시대 벼슬로 임의 신분을 나타냄과 동시에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하게 해 준다. [O X]
4. <사월령>에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화자의 체념이 드러나 있다. [O X]
5. <오월령>에는 장수를 위해 '약'을 임에게 주는 것으로 보아,

임은 공적인 대상으로도 볼 수 있다.

[O X]

6. <오월령>은 임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이 우회적으로 드러나 있다.

[O X]

7. <유월령>의 '빛'은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모습이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O X]

8. <사월령>~<유월령>에는 모두 그 달에 해당하는 절기와 풍습이 드러나 있다.

[O X]

9. 이 작품은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과 관련된 시어를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O X]

10. 이 작품의 전문을 고려할 때, '서사'부분은 다른 부분과 비교했을 때, 통일성이 어긋난다.

[O X]

 황조가(黃鳥歌) | 유리왕

동동(動動) | 작자 미상

[개념있는 킵공]

- (가): ①괘꼬리 ②3 ③외로움 ④O ⑤X ⑥O ⑦O ⑧X
⑨X ⑩O ⑪O
- (나): ①O ②O ③O ④X ⑤O ⑥X ⑦O ⑧X ⑨O
⑩O